

# 토기에서 백자·회화 ... 국립광주박물관 을 전시 '풍성'

**'아시아의 사유' '한국 철문화'**

**'불의 탄생' '고대의 모자' 눈길**

윤두서 서거 300주기를 맞아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에서 지난해 10월부터 3달간 열린 '공재(恭齋) 윤두서'전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전시 기간 모두 11만8259명이 다녀갔다.

국립광주박물관이 올해는 어떤 전시로 시민들을 설레게 할까. 올해는 모두 4차례의 특별전과 테마가 있는 작은 특집전 4회가 예정돼 있다.

청양의 해를 맞아 조선시대 푸른 빛으로

먼저 시민들을 만난다. 10일부터 5월10일까지 열리는 '조선 청화 푸른빛에 물들다'전은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전시로 조선시대 미의식과 도자 공예의 정수를 담은 조선 청화백자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전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오는 6월에는 아시아의 고미술품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6월2일부터 8월23일까지 열리는 '아시아의 사유'(가칭)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오랜세월 수집해온 아시아 각국의 회화, 도자기, 청동기 유물 등 10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아시아권 지역의 특징인 불교 미술을 비롯해

각 문화권의 예술품이 품고 있는 정신세계를 만날 수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지난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특별전으로 기획해 전시하는 '남도문화전 VI-담양'(9월15일~11월 22일)에서는 담양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통시대적으로 정리해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전시는 '한국 고대의 철문화-토기에서 칠기로'(12월15일~2016년3월6일)다. 국내에서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전시로 경도유적 출토 신석기시대 토기 등

모두 500여점이 전시된다.

테마가 있는 작은 특집전의 첫 번째 전시는 오는 5월25일까지 열리는 '비단의 고장, 광주 신창동의 직물문화'이다. 6~8월에는 '불의 탄생'전이 예정돼 있으며 '고대의 모자'(9~10월·가칭), '송진(松津, resin)의 문화사'(11~12월) 등이 열린다.

전시와 함께 200여회에 걸쳐 어린이, 청소년, 가족, 희망 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러시아, 그 영혼을 깨우다'를 주제로 열리는 '제22기 박물관 대학'과 '박물관 규방' '박물관 공방' '박물관 화원' 등 일반 전문가 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조선백자 청화에 물들다

국립광주박물관 오늘부터 5월 10일까지  
**'조선 청화, 푸른빛에 물들다' 특별전**

'흰색과 푸른색으로 박물관을 물들이다.'

10일부터 5월10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리는 2015년 첫 특별전 '조선 청화, 푸른빛에 물들다'에서는 흰색과 푸른색이 조화되어 만들어내는 절제된 아름다움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청화'는 흰 도화지에 푸른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듯 흰 도자기에 푸른 빛깔이 나는 코발트 염료를 이용해 그린 그림을 말한다. 조선시대 초창기 만들어진 청화백자에서는 백자 위에 마음껏 발휘된 도화사 화원들의 세련된 필치를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보물 제1058호 '난초 무늬 표주박모양 병'과 보물 제1329호 '시가 쓰여진 산수 무늬 연적' 등을 포함해 지난해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에 출품된 200여 점의 조선시대 청화백자가 전시된다.

15세기 등장한 청화는 왕실에서만 쓰일 만큼 귀한 그릇으로 왕실의 존엄을 담고 있었다. 이후 사대부와 함께 민간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1부 '조선의 위엄과 의례를 위하여'에서는 오례(五禮)를 치를 때 쓰는 예기(禮器)로서 청화백자를 소개한다. 꽃을 꽂거나 술을 담는 데 쓰인 '구름 용 무늬 항아리'는 '용존(龍樽)'이라 하여 대표적인 왕실용 청화백자 의례용기로 손



보물 제1058호 '난초무늬 표주박모양 병' 등  
조선시대 명품 청화백자 200여점 전시

꼽힌다.

2부 '사대부 문인의 이상과 품격을 담다'에서는 청화 무늬로 구현된 매화·대나무·소나무의 세한삼우와 정취 어린 한시를 통해 사대부의 기상과 문인의 정취를 품은 조선 청화의 그윽한 세계를 전한다.

3부 '온 천하의 그릇, 청화백자'에서는 조선 후기 왕실과 사대부, 문인 지식층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대중화된 청화백자의 다채로운 모습을 살펴본다. '소상팔경(瀟湘八景)'과 같은 산수 무늬를 비롯해 십장생·수복문자 등과 같은 소재와 상징에는 당시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꿈과 바람이 투영돼 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청화백자 문화를 공유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청화백자 문화의 보편성과 지역성을 다룬다. 문의 062-570-70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조선 왕실용 청화백자로 술을 담거나 꽃을 꽂는데 사용한 '구름 용 무늬 항아리'



매화 새 대나무 무늬 항아리



매화 무늬 접시



보물 1058호 난초문 표주박 병



보물 1329호 산수무늬 연적



산수무늬 연적 상단부



## '미알할미춤' '무등산 호랑이 춤'

전통연희놀이연구소

12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광주시 서구가 주최하는 빛고을국악전수관 목요일국악한마당 441회 공연이 12일 오후7시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이번에 초청된 팀은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통연희놀이연구소다.

'덩~덩 더러꾸'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의 첫 무대는 '미알할미춤'이다. '미알할미춤'은 강령탈춤 '영감할미춤'에 등장하는

할미를 '미알'이라고 부르는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할미의 재담과 엉덩이 춤이 일품이다.

두번째 춤은 사자춤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신령한 백(白) 사자가 등장한다. 이어 미알할미춤과 사자춤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작품 '무등산 호랑이 춤',

이번에 초청된 팀은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통연희놀이연구소다.

'덩~덩 더러꾸'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의 첫 무대는 '미알할미춤'이다. '미알할미춤'은 강령탈춤 '영감할미춤'에 등장하는

/김미은기자 mekim@

##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 13일 '강숙자 오페라 라인'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 2월 행사가 13일 오후 7시30분 문화공간 '강숙자 오페라 라인'(임동성당 옆 서광신협 4층)에서 열린다.

이번 달 초청 작곡가는 이안삼 씨로 그의 대표곡인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를 함께 배운다. 또 임 씨가 작곡한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사랑의 종이 되리', '사랑' 등도 만날 수 있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황선옥 대표가 처음으로 무대에 서며 박안수·심옥호·김건이·정용준씨 등 회원들의 공연도 이어진다.

모임은 지난 1월부터 초·중·고생들에게 우리 동요와 가곡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꿈나무 공연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박시원 (유안

초 2학년)양이 '술놀이' 등을 부른다.

또 지난 2011년 창단한 중창단 '빛고을 시니어 앙상블'(단장 차주원)

이 특별 출연, '향수' 등을 들려준다. '성불사의 밤', '내 마음' 등 추억의 가곡도 함께 부르는 시간을 마련한다.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는 매월 둘째 금요일 열리며 회비 1만 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http://cafe.daum.net/gjk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



이안삼 작곡가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유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리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사재 추천제품  
 TRIA-SHIELD®  
 단열복합시트방수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 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달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